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31 >

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램스와 트로잔스는 단장을 교체했습니다.

아.

둘 모두 젊고,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팀단들기를 해나가나를 주목해 보시면 언제나 램스와 트로잔스의 경기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장담하지만, 김예린 단장을 어리다고, 여자라고 우습게 봤다간..

바로 잡아먹힐 것입니다.

꿀꺽

뭐 당시 상당히 이슈가 됐었지만 트로잔스는 최연소, 더군다나 최초의 여성단장이네요.

후후.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야 어리다거나 여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흥미로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들갑은.

성사 직전까지 갔던 재계약을 제가 날렸거든요.

아하~ 하.하.하.

자, 1회초 램스의 공격. 스타팅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RTING LINEUP

1. 조준현 2B
2. 이승범 CF
3. 유진승 3B
4. 김기정 LF
5. 최만근 DH
6. 박석주 1B
7. 김태윤 RF
8. 오영웅 C
9. 이상운 SS

자, 이어서 트로잔스의 수비위치를 보시겠습니다.

호오~ 이승범, 유진승 빼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 김기정이 좀 칙니다. 하.하.

김기정? 아... 게이터스에서 데려간 애?

호오~ 반면에 트로잔스는 완전 스타군단이에요.

5년전이었으면 말이죠.

할 말 없음요.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SWOT으로 보는 '엑스맨:아포칼립스'

진화하는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가 그렇듯 '엑스맨'도 편수를 더할수록 점차 강한 악당이 등장한다. 그에 맞서야 하는 돌연변이들의 운명은 더욱 가혹하다.

25일 개봉하는 '엑스맨:아포칼립스'(사진)는 2000년 시작해 해수 16년간 계속된 시리즈의 진가를 드러내는 영화다. 이번에는 절대악으로 통하는 고대의 돌연변이 아포칼립스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이름대로 인류를 '파멸'로 내모는 역할, 각각각색 능력을 발휘하는 돌연변이 집단은 힘을 모아 그에 대항한다.



하지만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16년간 시리즈를 보지 못한 관객도 재미를 느끼도록 집중했다"고 밝혔다. 감독의 각오가 영화로 실현됐는지,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

STRENGTH(강점)···개성파 돌연변이

선과 악의 대결, 권선징악의 메시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놓치지 않는 가치다. 소재와 장르는 달라도 악에 맞선 선의 승리는 관객에게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전하기 때문. '엑스맨'의 선택도 같다.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이야기라는 의미다.

블록버스터의 진화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객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기상천외한 능력을 발휘하는 돌연변이들의 변신은 '엑스맨'이 가진 고유한 매력. 이번에는 절대악으로 합류한 고대의 돌연변이 아포칼립스가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배우 오스카 아이삭은 그 역할을 위해 촬영마다 18kg에 달하는 슈트를 착용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얼굴에는 세 개의 특수마이크를 장착해 목소리를 바꿨다. 누구보다 화려한 신고식이다.

OPPORTUNITY(기회)···슈퍼 히어로에 질렀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벤저스'로 대표되는 슈퍼 히어로 영화가 동시다발적인 폭발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이언맨부터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부터 배트맨까지 히어로의 전성시대다. 전부 힘이 있는 '주류'의 영웅이다.

그에 반해 '엑스맨'의 주역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외면 받은 돌연변이들. 사연 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전복'하고 대의를 위해 극적으로 모일 때, 관객의 희열은 배가 된다. 할리우드 인기스타들이 그려내는 돌연변이들의 개성도 매력적이다. 제니퍼 로렌스, 니콜라스 홀트까지 스타 출연진은 이번에도 변함없다.

WEAKNESS(약점)···프리퀼의 마지막

'엑스맨'은 그동안 총 8편이 제작됐다. 이번 영화는 2011년 시작한 '엑스맨'의 프리퀼 3부작을 마무리하는 작품. 1980년대가 배경이다. 프리퀼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였던 2014년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상황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때문에 프리퀼 시리즈는 물론 앞선 본편과, 후작편이 연기한 캐릭터 울버린을 내세운 스펀오프 시리즈까지 두루 감상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영화가 내세운 '돌연변이 정서'가 다소 낯설 수 있다.

THREAT(위협)···대작에 또 대작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향한 관객의 지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자주 보면 질리기 마련. 5월부터 6월까지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빼곡하게 이어진다. 이미 850만명에 이르는 관객이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를 관람한 상황. 영웅의 활약을 목격한 관객이 또 다시 인류의 위기와 극복을 다룬 스토리에 관심을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엑스맨'에 이어 '인디펜던스 데이:인셔전스'도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새 영화

●산이 올라
25일 개봉 | 감독 레리 양 | 주연 랑레팅 왕쯔이 | 107분 | 15세 관람가

1984년 중국의 산골마을. 마을 청년 한층이 설 치한 폭약을 실수로 밟아 한 남자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남겨진 남자의 아내 홍시아를 그가 보살피도록 한다. 한층은 청각장애인 홍시아와 지내면서 점차 끌리지만 한편으로 이들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마을사람들과 갈등도 커진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먼저 공개된 영화는 1980년대 웅장한 중국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렸다. 작가 거쉬핑이 쓴 영화의 원작 소설은 2005년 루쉰문학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 웅장한 중국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렸다. 작가 거쉬핑이 쓴 영화의 원작 소설은 2005년 루쉰문학상을 수상했다.



●오베라는 남자

25일 개봉 | 감독 하네스 홀름 | 주연 볼프 라스기드 | 116분 | 12세 관람가

'오베'라는 이름의 남자. 종잡을 수 없다. 고집 불통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까칠한 성격까지. 평생 바친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고 실상가상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다.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순간, 막무가내의 이웃들이 오베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한다. 유럽과 북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동명의 스웨덴 소설을 옮긴 스웨덴 영화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난방기를 직접 고치고, 이웃집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자 투덜대면서도 돕는 것은 물론 혐오하던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못해 집에 들이는 오베라는 남자의 매력에, 이미 '독자'들은 열광했다.

러 1위를 기록했던 동명의 스웨덴 소설을 옮긴 스웨덴 영화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난방기를 직접 고치고, 이웃집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자 투덜대면서도 돕는 것은 물론 혐오하던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못해 집에 들이는 오베라는 남자의 매력에, 이미 '독자'들은 열광했다.

이해리 기자

뉴스디자인 | 김창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기업은행이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6번째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새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과장 차당급 등 비간부직에게 절대평가 방식의 개인평가가 도입된다. 성과연봉 차등폭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p, 비간부직은 1%p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 받지 못한 채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업은행은 13일 내부 게시판에 '성과주의 시행안'에 대한 설명자료 올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코, 창립 14주년 특가 이벤트

오제코(대표 강경아)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오는 31일(화)까지 오제코 전 상품을 대상으로 '14% 쿠폰 할인 행사'와 오제코의 베스트셀링 메이크업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가로 제공하는 '메이크업 특가전'을 진행한다. 메이크업 특가전의 '하이엔터

치 파운데이션'은 용기 자체에 물러가 부족되어, 화장에 서툰 초보자도 매끄러운 표현이 가능한 제품으로 기존 가격의 28% 할인된다. '쇼킹 트리플 아이 라이너'와 '쇼킹 베이비페이스 듀얼 아이브로우', '쇼킹 팍 팍 립스틱' 또한 약 50% 할인된다.

레이저오펙, 유독가스 없는 치료기 개발

중령 의료기업체 레이저오펙(대표 주홍)이 유독가스가 없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난치성피부질환용 NB-UVB 311nm 레이저치료기 '팔라스'(사진)를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한다. '팔라스'는 자체 기술진의 연구개발을 통해 311nm를 구현하는 원천기술을 국산화시켜 해외에 수출할 로열티도 없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레이저치료기다. '팔라스' UV레이저는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마취크림을 바르지 않고 시술해도



통증을 거의 못 느껴 민감한 신체부위와 소아치료까지도 가능한 저자극형 안심 레이저방식이다.

풍림무역,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풍림무역(대표 이정석)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6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 7가지 요건을 고려해 선정하던 강소기업 기준에서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추가해 보다 엄격해진 선정방식으로 선별한 기업이다. 풍림무역은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통근버스, 사내 식당, 자녀학자금, 법정 휴가 외 하계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내 온라인 교육과 직급·직무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업무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풍림무역은 1974년 창립 이래 40여년 동안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식품 원료, 화장품 및 화학 원료 등 고부가가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 돌잔치 패키지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은 특급호텔 식사와 돌상 데코레이션을 포함한 돌잔치 패키지(사진)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럭셔리 등 총 3가지 종류로 구성했고, 주중에는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50명 이상 이용 가능하고 리노베이션이 끝난 오키드룸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주항공, 국제선 셀프 백드롭 서비스

에경그룹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셀프 백드롭(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승객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짐을 직접 맡기는 셀프백드롭

은 인천국제공항 3층 F카운터에 있다. 이용 가능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며 웹, 모바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셀프체크인으로 탑승권을 발급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설악 소라노, 짙라인 플라잉폭스 오픈

한화리조트는 설악 소라노 워터피아의 공중레포츠 시설 '플라잉폭스(짙라인·사진)'를 지난 주말부터 오픈했다. 소라노에서 워터피아, 워터피아에서 소라노로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300m다. 로프어벤처 관련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요원의 배치돼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다. 워터피아와 설악 소라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플라잉폭스 사진을 개인 SNS에 '#플라잉폭스', '#속초짙라인' 해시태그 합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